논어 18편 미자 3장 · 원문·풀이

齊景公待孔子，曰：「若季氏則吾不能，以季、孟之閒待之。」曰：「吾老矣，不能用也。」孔子行。

독음 · 제경공대공자 왈 약계씨즉오불능 이계맹지간대지 왈 오로의 불능용야 공자행

쉬운 풀이(요약) · 제경공이 공자를 높이 대하려 했지만 늙어 쓸 수 없다고 하자 공자는 떠났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齊 가지런할 제 제 / 景 별 경 경 / 公 공변될 공 공 / 待 기다릴 대 대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若 같을 약 약

季 끝 계 계 / 氏 성 씨 씨 / 則 곧 즉 / 吾 자기 오 오

不 아닐 불 / 能 능할 능 능 / 以 써 이 이 / 孟 맏 맹 맹

之 갈 지 / 閒 한가할 한 한 / 老 늙은이 로 로 / 矣 어조사 의

用 쓸 용 용 / 也 어조사 야 / 行 다닐 행 행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